

뒤통수 택배사, 뒷짐 정부 사기 치지 말고 인력 충원하라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뒤통수를 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택배사와 정부가 또 사기극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는 집화·배송 업무로 제한하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임금)를 지급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노동자 연대> 353호 '유리한 정세 속에 성과 거둔 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시간의 44퍼센트에 이르는 분류 작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환영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류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수수료(임금) 수준 등에 대해 택배사들이 서둘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각 택배사들에 이행 논의를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합의 닷새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각 대리점에 '추가 대책은 없으니 기존대로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택배비가 인상될 때까지 분류 인력 투입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닷새 만에

이는 "분류작업의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 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합의문 조항과 충돌한다. 물론, 합의문에는 택배사들의 요금 인상 요구가 반영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택배사들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에 관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요금 인상을 앞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



기에 충분하다. (합의문의 1·2번 조항이자 핵심 내용이 분류작업을 사측이 책임진다는 것이었고, 요금 인상이 인력 충원 논의에 선행한다는 전제가 달린 것도 아니었다.)

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인력 충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 이 또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문에는 설 명절 대목에 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합의 이후에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것 없어 설 특수기를 이대로 맞이하면 과로사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택배사들이 밝힌 인력 충원 규모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달간(최소) 5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안타깝게도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의식 불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의 경우, 자동 분류 설비가 없어 최소 각

4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택배사들의 이 같은 태도에 노동자들은 "합의 파기"라고 규탄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열 받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시간 질질 끌며 인력 충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이남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원지회장)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민간택배사들이 이렇게 나오자, 단체협약에 '택배 합의문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우정사업본부도 '분류 작업은 사측이 책임진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6000명의 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실제 이를 이행하도록 제대로 강제하기는커녕 그저 뒷짐 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와 꼭 마찬가지다.

합의 이행 문제에서도 다르지 않다. 노조가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 시도를 규탄하며 다시 투쟁 준비에 나서자, 정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지

노동자들은 파업을 다시 추진해서라도 택배사들의 꼼수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조합원들은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 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임현우 전국

택배노조 이찬한진지회장) 전국택배노조는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택배사가 분류 작업이 사측 책임이라는 것을 노사 협정서로 확약하지 않는다면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91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해 놓은 상태이다.

마침 정세는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세를 이용해 싸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조가 택배 배송 물량이 몰리는 설 명절 대목을 파업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노동계급 대중의 정서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결속시키며 투쟁과 조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생애 첫 파업에서 성과를 냈다. 이번 투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그런데도 택배 업체들은 이윤을 쏙 빼 담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가령, 미국 우편 노동자와 UPS 노동자들이 한 달 내내 거의 쉬는 날 없이 12~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시애틀에서 일하는 UPS 배송원은 말했다. “주 6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피곤해요.”

아마존은 수많은 하청업체에 배송을 위탁해 비용을 줄이려 한다. 배송 노동자들은 아마존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지만,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거나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위장 자영업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장시간 과로에,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대체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하청 배송 노동자는 말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착취당하고 기만당한다고 느껴요. 저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 돈방식에 얹는데, 막대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푼돈만 줍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도 계속돼 왔다.

지난해 4월, 미국의 한 UPS 기사가 사측의 안이한 방역 조치를 폭로했다가 해고당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항의해 복직하는 일

이 있었다. 같은 달 미네소타주에서도 아마존 사측의 부당 해고에 맞서 동료 노동자들이 파업해 복직을 따냈다.

중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산발적으로 벌어져 왔다. 택배사들이 노동자들을 장시간 일 시키면서도 건당 수수료는 계속 낮춰 왔기 때문이다. 중국노동회보(CLB)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34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최근 영국에서도 DHL 노동자들이 강렬한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세계적 투쟁의 일부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